

2026.7.7.

출장 결과 보고

「강화군 보훈단체 운영 효율화 및 보훈회관 공간 혁신 방안」 국외 조사 보고

「강화군 보훈단체 운영 효율화 및 보훈회관 공간 혁신 방안」 국외 조사 보고

I 출장개요

■ 출장 목적

- 강화군 보훈회관에 입주한 보훈단체는 회원 고령화, 신규 회원 감소, 운영인력 부족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보훈회관 역시 단체별 독립 사무실 중심의 운영구조로 인해 공간 활용성과 운영 효율성 제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일본의 유사 사례를 조사하여 보훈단체 운영체계 개편과 보훈회관 공간 혁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첫째, 히로시마에서는 회원 감소와 초고령화, 기억 계승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운영 방식과 아카이브 구축, 시민교육, 평화교육, 디지털 전시, 청년 참여 프로그램 등 시설 기능 전환 사례를 조사하고 관계자 면담을 실시하고자 함
- 오사카에서는 고령자 단체시설, 지역복지시설, 시민활동시설 등을 대상으로 공용공간 확대, 복합시설 운영, 통합 사무 기능 도입, 지역사회 개방 등 시설 운영 혁신 사례를 조사하여 보훈회관의 공간 활용 및 운영체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국외사례 조사를 통해 강화군 보훈단체의 지속가능한 운영체계 구축, 통합 지원형 운영모델 도입, 보훈회관의 복합·개방형 공간 전환, 세대 간 기억계승 및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 방안 등 연구과제의 정책대안을 구체화하고자 함

■ 출장 기간: 2026.6.30.(화)~7.(금), 3박 4일

■ 출장 국가 및 도시: 일본 히로시마시(広島市), 오사카시(大阪市), 하비키노시(羽曳野市), 야오시(八尾市)

■ 출장자: 남근우(연구위원)

■ 담당업무:

출장자	직급	부서	업무 내용
남근우	연구위원	도시사회연구부	• 방문기관 및 관계자 간담회 • 관련 시설 운영 방식 사례 조사 • 보고서 작성

○ 출장 일정

일 자	지 역	시 간	주 요 일 정	비고
6월 30일(화)	인천→ 히로시마	07:45~12:00	• 인천 출발 → 히로시마 공항 및 히로시마시 이동 - (편명: 7C1611 / 공항 리무진 버스)	
		12:00~14:00	• 중식 및 간담회 장소 이동	
		14:00~18:00	• 자문회의 - 한정미(히로시마현동포생활상담센터장) - 김진호(히로시마현조선인피폭자협의회장) - 이필희(히로시마한마음한국어학교 교사) - 이와타 야스타다(岩田 泰忠, 히로시마현평화대사협의회 사무국장) ● 장소 : 히로시마 한마음한국어학교 ● 통역 : 윤치중 한마음한국어학교장	간담회
7월 1일(수)	히로시마시 오사카시	09:00~14:00	• 시찰 및 중식 - 히로시마시문화재단 아스텔플라자 ● 설명 : 이와타 야스타다 ● 통역 : 윤치중 한마음한국어학교장	시찰
		14:00~18:00	• 오사카 이동	신칸센/ 대중교통
7월 2일(목)	오사카시 히비키노시	09:00~13:00	• 간담회, 시찰 및 중식 - 김명석(민단 오사카부 후쿠시마지부 의장) - 고춘숙(민단 오사카부 후쿠시마지부 사무부장) - 박미진재(민단 오사카부 후쿠시마지부 부인회장) ● 장소 : 후쿠오카지부 ● 통역 : 조안수(스미요시 스미노에 한글학교장)	간담회/ 시찰
		13:00~14:00	• 히비키노시 이동	
		14:00~16:00	• 간담회 - 나카무라 카스미(中村 香澄) 호크산(株式会社 北燦) 시설장 - 미나미바야시 렌(南林 蓮) 히츠지(株式会社 ひつじ) 대표 이사 ● 장소 : 호크산 및 히츠지 ● 통역 : 조안수(스미요시 스미노에 한글학교장)	
		16:00~19:00	• 오사카 민단본부 방문 및 현장 견학 ● 설명 : 양길동(오사카 민단본부 조직부장)	
7월 3일(금)	야오시	09:00~14:00	• 간담회 및 중식 - 박청(한일역사문화연구회 대표 및 전 민단 야오지부장) - 허옥희(한일역사문화연구회 이사 및 현 민단 야오지부장) ● 장소 : 야오시 민단지부 ● 통역 : 조안수(스미요시 스미노에 한글학교장)	
	오사카→인천	18:00	• 오사카 간사이공항 → 인천공항(ZE614)	

1 간담회

1. 히로시마현동포생활센터장 및 히로시마현조선인피폭자협의회장

■ 인터뷰 개요

○ 참석자

- (한국) 남근우(인천연구원 연구위원)
- (일본) 한정미(히로시마현동포생활센터장), 김진호(히로시마현조선인피폭자협의회장), 이필희(한마음한글학교 교사), 이와타 야스타다(히로시마현평화대사협의회 사무국장)
- (통역) 윤치중 한마음한글학교장 등 6명

○ 일시 및 장소

- 일시: 2026.6.30.(화), 14:00~18:00
- 장소: 히로시마한마음한글학교(広島市中区舟入町2-20三栄広島ビル 501号)

■ 주요 내용

① 히로시마 민단 운영체계와 보훈단체 운영 효율화

○ 민단은 통합 행정지원, 도민회는 자율 운영

- 히로시마 민단은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제주도 등 도민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별도의 사무실은 두지 않고 있음. 각 도민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를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며, 행사 개최 시에는 호텔이나 외부시설을 활용함
- 도민회 운영예산은 회원 회비와 기부금으로 마련하며, 민단 사무국은 행정지원 역할만 수행함. 즉, 조직 운영은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행정업무는 통합 지원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음
- 이는 개별 단체마다 별도의 사무공간을 운영하기 보다 통합 행정조직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한 사례로 볼 수 있음

○ 회원 감소와 재정 악화는 강화군 보훈단체와 유사

- 과거에는 여권 발급 등 민원업무를 민단이 담당하면서 자연스럽게 회원을 확보할 수 있었으나, 2000년 이후 총영사관이 직접 민원을 처리하게 되면서 민단 가입 필요성이 크게 감소함
- 최근에는 회원 고령화와 청년층 감소로 회비 수입이 줄어들면서 운영재원이 부족해지고 있으며, 부족한 예산은 일부 후원자의 기부를 통해 충당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은 회원 감소와 재정 악화를 겪고 있는 강화군 보훈단체의 현실과 매우 유사하며, 향후 단체 중심 운영에서 공동사업 중심 운영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시사함

② 피폭자협의회 의 세대교체와 기억계승

○ 고령화에 따른 조직 재편 필요성

- 히로시마 피폭자 1세대는 대부분 사망하거나 초고령 상태에 접어들면서 조직 존속 자체가 어려운 상황임. 현재 히로시마에는 여러 피폭자단체가 존재하지만 정치적 성향과 이념 차이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조직 통합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임
- 강화군 역시 하나의 단체에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는 단체들이 있으나, 히로시마가 이념적 갈등에 따른 분열이라면 강화군은 조직 내부 갈등에 따른 분화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조직 통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공동사업을 확대하고 통합 행정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

○ 증언집 제작과 교육을 통한 기억 계승

- 피폭자협의회는 40주년을 맞아 『40년의 발자국』을 발간하고 피폭자의 증언을 체계적으로 기록하였음. 제작된 자료는 단순 보관에 그치지 않고 학교와 지역사회에 배포하여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강연과 평화교육 프로그램에도 적극 활용하고 있음
- 2025년에는 원폭투하 80주년을 맞아 처음으로 피폭자협의회 차원의 추도행사를 개최하는 등 기억계승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강화군 역시 참전유공자의 고령화를 고려할 때 구술채록, 증언집, 사진자료집, 디지털 아카이브 등을 구축하여 후세 교육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미래세대 참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확대

- 과거에는 학생들을 직접 인솔하여 역사현장을 방문하였으나 최근에는 학교가 중심이 되어 역사교육을 수행하고 있음. 단순 견학이 아니라 체험활동과 문화행사를 결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음
- 강화군 역시 회원 중심 현충시설 방문에서 벗어나 학생 대상 역사체험, 평화교육, 문화행사 등을 확대하여 미래세대가 자연스럽게 보훈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라도 통합사무국을 구성해 행사와 운영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보훈단체 운영의 개선이 필요함

③ 동포생활종합상담센터의 공간 운영 사례

○ 통합사무국 중심의 복합공간 운영

- 동포생활종합상담센터에는 동포생활상담실, 청년상공회 등 여러 단체가 함께 입주하고 있으며, 개별 단체별 운영보다 통합사무국이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음
- 이를 통해 시설관리와 행정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단체 간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 시민에게 개방하는 공공공간 활용

- 센터의 회의실은 지역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하여 주민회의, 지역모임 등 다양한 공익활동에 활용되고 있음. 이러한 공공성 확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고정자산세 감면 혜택도 받고 있음

- 이는 시설을 특정 단체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공공자산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보여줌
- 강화군 보훈회관 역시 회의실과 교육공간을 시민에게 개방하여 전시회, 세미나, 평화강연, 보훈콘서트, 학생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시사점

○ 통합사무국 설치를 통한 운영 효율화

- 일본 사례는 개별 단체보다 통합 행정조직이 조직 운영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줌
- 강화군 보훈회관 역시 통합사무국을 설치하여 행정지원, 시설관리, 공동사업 기획 및 운영을 전담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열린 보훈회관 조성

- 보훈회관은 단순한 단체 사무공간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와 함께 사용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회의실을 시민에게 개방하고 전시, 공연, 평화교육, 역사강연 등을 운영함으로써 지역공동체와 소통하는 공간으로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기억의 기록과 계승 체계 구축

- 참전유공자의 평균연령을 고려할 때 구술채록과 증언집 제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
- 강화군 보훈단체 13개 단체를 대상으로 구술기록과 사진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디지털 아카이브와 교육콘텐츠로 제작하여 미래세대에게 계승하는 정책이 필요함
- 이는 단순한 기록사업을 넘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의 정신을 지역사회와 미래세대가 함께 기억하고 계승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짐



[사진 1] 히로시마 간담회

2. 오사카 후쿠시마 민단지부 간담회 및 현장조사

■ 인터뷰 개요

○ 참석자

- (한국) 남근우(인천연구원 연구위원)
- (일본) 김명석(후쿠시마지부 의장), 고춘숙(후쿠오시마지부 사무부장), 박미진자(후쿠시마 부인회장)
- (통역) 조안수(스미요시 스미노에 한글학교장) 등 5명

○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6.7.2.(목), 09:00~13:00
- 장소 :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오사카부 후쿠오카지부(大阪市福島区大開1丁目2番14号)

■ 주요 내용

① 지역사회와 연계한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 오사카 후쿠시마 민단지부는 오사카에서 가장 규모가 작은 지부임에도 불구하고 부인회를 중심으로 한글교실, 보자기 교실, 김치요리 교실 등 다양한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특히 한글교실에는 재일동포뿐만 아니라 일본 시민들도 참여하고 있으며, 한글교육과 함께 보자기, 한국요리 체험, 야유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확대하고 있음. 민단의 공식행사는 회원 중심으로 운영되지만, 문화교실과 교육 프로그램은 지역 주민에게도 개방하여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접점을 확대하고 있음
- 이는 강화보훈회관 역시 보훈단체만을 위한 공간에서 벗어나 시민 대상 교육과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역사회 개방형 공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② 회원 감소와 조직 존립 위기에 대한 대응

- 과거 민단은 여권 발급, 호적정리, 번역, 상속 등 다양한 영사업무를 대행하면서 회원을 확보할 수 있었음. 그러나 현재는 영사업무가 총영사관으로 이관되면서 민단을 방문할 필요성이 크게 감소하였고, 회원 고령화와 귀화 증가, 후속세대 가입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조직의 존립 기반이 약화되고 있음
- 또한 과거 조총련과의 대립, 재일동포 권익 보호 등 민단의 존재 이유가 시대 변화와 함께 약화되면서 젊은 세대가 조직의 필요성을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함
- 이러한 변화는 회원 감소와 조직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화군 보훈단체의 현실과 유사하며,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역할과 기능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줌

③ 시대 변화에 맞는 단체의 역할 재정립

- 민단은 시대 변화에 따라 기존의 행정지원 기능이 축소되자 문화교실, 지역축제 참여, 세대 간 교류 등 공동체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의 역할을 전환하고 있음. 특히 1996년부터 지역 구민축제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한국문화를 소개하고 일본 시민들과 교류하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음. 또한 고령 회원에게는 친목과 공동체 활동을 제공하고, 젊은 세대에게는 민족교육과 역사교육을 통해 정체성을 형성하도록 지원하고 있음
- 이는 강화군 보훈단체 역시 기념행사 중심의 활동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문화·교육 플랫폼으로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④ 후속세대를 위한 역사교육과 정체성 교육

- 후쿠시마 민단지부 부인회는 매년 강연회를 개최하여 재일동포의 형성과정과 삶의 역사, 성공과 실패 사례, 지역사회 기여 등을 소개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또한 일본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야마구치 장생탄광 수몰 희생자 유해발굴 운동 등을 소개하고, 재일동포의 역사와 인권 문제를 교육하는 활동도 병행하고 있음. 이는 단순한 역사교육이 아니라 공동체 정체성과 사회적 가치를 미래세대에게 계승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큼
- 강화군 역시 참전유공자의 활동과 지역 보훈의 역사를 청소년과 지역주민에게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정례화할 필요가 있음

⑤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기록하는 구술아카이브 구축

- 후쿠시마 민단지부 부인회는 재일동포 11명을 대상으로 일본 이주 과정, 결혼과 육아, 교육, 직업, 생활상 등 평범한 삶의 역사를 인터뷰하여 영상과 기록물로 제작하고 있음. 제작된 영상은 지부 사무실에서 상영하고, 향후 연구자료와 교육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기증받은 사진을 활용한 전시회도 함께 준비하고 있음. 이는 특정 지도자나 유명 인물이 아닌 일반 구성원의 삶을 기록하여 공동체의 생활사를 보존하는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강화군 역시 참전유공자뿐만 아니라 보훈단체 회원들의 생애사와 지역사회 활동을 구술채록과 영상으로 기록하여 보훈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전시와 교육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⑥ 회원의 재능을 활용한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 후쿠시마 민단지부는 회원들이 보유한 재능을 활용하여 보자기 제작, 한국요리, 음악 등 다양한 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중단되었던 프로그램도 젊은 회원을 새롭게 영입하여 재개하고 있음

- 이러한 방식은 회원이 단순한 행사 참여자가 아니라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주체로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 강화군 보훈회관 역시 회원들의 경험과 재능을 활용한 평화강연, 역사해설, 전통문화 체험, 사진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보훈단체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⑦ 조직 통합을 통한 운영 효율성 제고

- 현재 후쿠시마 민단지부는 고노하나지부와 다이쇼지부가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규모는 작지만 부인회를 중심으로 조직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음. 이는 회원 감소에 대응하여 조직을 통합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인 사례로 평가할 수 있음
- 강화군 역시 회원 감소와 고령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통합사무국을 중심으로 공동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단체 간 협력과 통합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시사점

- 오사카 후쿠시마 민단지부 사례는 회원 감소와 조직의 존립 위기 속에서도 교육, 문화, 기록, 지역사회 참여를 통해 조직의 새로운 역할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함
- ① 지역사회 개방형 문화프로그램 운영, ② 후속세대 역사교육 강화, ③ 평범한 구성원의 생애사 기록, ④ 회원 재능을 활용한 참여형 프로그램, ⑤ 조직 통합을 통한 운영 효율화는 강화군 보훈단체 운영 효율화 및 보훈회관 공간 혁신을 위한 핵심 정책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이는 보훈회관을 단순한 단체 사무공간이 아닌 '기억을 기록하고, 시민과 소통하며, 미래세대를 교육하는 지역 보훈플랫폼'으로 전환하는 데 중요한 해외 사례로 평가됨



[사진 2] 오사카 후쿠시마지부 간담회

3. 호크산 / 히츠지 간담회

■ 인터뷰 개요

○ 참석자

- (한국) 남근우(인천연구원 연구위원)
- (일본) 서현주(NPO법인한국정원회 이사장), 나카무라 카스미(호크산 시설장), 미나미바야시 렌(히츠지 대표이사)
- (통역) 조안수(스미요시 스미노에 한글학교장) 등 5명

○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6.7.2.(목), 14:00~16:00
- 장소 : 오사카부 하비키노시 고오도 83-1(大阪府羽曳野市郡戸83-1)

■ 주요 내용

① 개호보험(介護保険) 기반의 통합 돌봄서비스 운영

- 호쿠산(株式会社北燦)과 히츠지(株式会社ひつじ)는 일본의 개호보험(장기요양보험) 제도를 기반으로 고령자를 대상으로 주거, 방문요양, 생활지원, 상담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시설 입소뿐만 아니라 재가서비스를 함께 운영하여 이용자가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특징임
- 특히 정신보건복지사를 중심으로 건강상담과 정신건강 상담을 병행하고, 전문인력이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관리와 생활상담을 제공하는 등 예방 중심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음
- 이는 강화군 보훈회관도 단순한 단체 사무공간에서 벗어나 건강관리, 정신건강 상담, 방문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복합 보훈복지 플랫폼으로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② 운영조직과 서비스시설의 기능 분리

- 일본은 실버인재센터와 같은 지역지원 조직과 노인요양시설·장애인복지시설 등 서비스 제공시설의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음. 지역지원 조직은 고령자의 사회참여와 일자리 지원을 담당하고, 시설은 돌봄과 상담 등 전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함
- 강화군 역시 보훈회관의 운영조직(통합사무국)과 보훈서비스 기능을 체계적으로 분리하여 행정지원과 복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시사점

- 호쿠산과 히츠지 사례는 단순한 노인복지시설이 아니라 상담, 돌봄, 방문서비스를 연계하는 통합형 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강화군 보훈회관 역시 단체 사무공간 중심의 기능에서 벗어나 보훈상담, 건강관리, 정신건강 상담, 찾아가는 보훈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복합 보훈복지 플랫폼으로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운영조직(통합사무국)과 서비스 제공 기능을 분리하여 행정지원은 통합적으로 수행하고, 보훈단체는 사업과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사진 3] 호쿠산 / 히츠지 간담회

4. 오사카부 야오시 민단지부 간담회 및 현장조사

■ 인터뷰 개요

○ 참석자

- (한국) 남근우(인천연구원 연구위원)
- (일본) 박청(한일역사문화연구회 대표 / 전 야오민단 지부장), 허옥희(현 야오민단 지부장) 등 3명
- (통역) 조안수(스미요시 스미노에 한글학교장) 등 4명

○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6.7.3.(금), 09:00~14:00
- 장소 : 야오시 민단지부 사무실(大阪府八尾市志紀町3丁目30)

■ 주요 내용

① 지속적인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공동체 활성화

- 야오지부는 회원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매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며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오사카부 내 민단 지부 가운데 매월 정기적인 행사를 운영하는 사례는 야오지부가 대표적인 것으로 평가됨
-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어린이 교류행사, 요리교실, 볼링대회, 고구마 캐기 체험, 맥주축제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인과 일본인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교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특히 8월에는 한국과 일본 어린이들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교류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다문화 이해와 상호교류를 확대하고 있음
- 이는 단순한 회원 친목활동을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동체 프로그램으로 발전한 사례이며, 강화군 보훈단체 역시 회원 중심 행사에서 벗어나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② 지역축제로 발전한 떡메치기 행사

- 야오지부의 대표 행사인 연말 떡메치기 대회는 올해로 20회를 맞이하는 지역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매년 12월 셋째 주 일요일 개최되는 이 행사는 약 300kg의 찹쌀을 사용하며, 예산 규모는 약 200만 엔에 달함
- 행사에는 지역 시의원과 기업, 한국인과 일본인 주민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 모두가 함께 즐기는 마을축제로 발전함
- 이러한 사례는 강화군 보훈행사 역시 기념식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축제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줌

③ 자체 수익사업을 통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

- 야오지부는 민단 중앙본부 지원금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자체 수익사업을 운영하여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있음
- 행사 예산은 지역 기업의 광고 후원과 소액 후원자를 적극 발굴하여 마련하고 있으며, 1만 엔, 5만 엔, 10만 엔 단위의 광고 후원을 통해 지역사회와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음
- 또한 주차장 운영 등 자체 수익사업을 추진하여 지속적인 운영재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주차장 조성으로 주변 환경이 개선되어 지역 주민과 경찰로부터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 이는 지역사회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단체 운영재원을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 사례로 평가됨

④ 차세대 육성을 통한 지속적인 투자

- 야오지부는 모든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을 차세대 육성에 두고 있으며,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장학사업과 한일 역사문화교류사업 역시 미래세대 양성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특히 어린 시절부터 다양한 행사와 문화활동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성장하여 지역사회를 이끌어 갈 인재로 육성될 수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
- 이는 단발성 청소년 행사보다 지속적인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미래세대 육성의 핵심임을 보여주는 사례임

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문화공생 플랫폼 구축

- 야오지부는 '다문화공생사회를 지역에서부터 실현한다'는 목표 아래 한국인과 일본인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이러한 활동이 지속되면서 지역사회에서는 민단을 특정 민족단체가 아닌 지역공동체의 문화거점으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음
- 이는 민단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확대하는 성공적인 지역공동체 운영 사례로 평가할 수 있음
- 강화군 보훈회관 역시 보훈단체만 이용하는 공간이 아니라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역사·문화 플랫폼으로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시사점

○ 지역사회 참여 확대를 통한 보훈단체 활성화

- 야오지부는 매월 다양한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주민과의 접점을 확대하고 있음. 강화군 보훈단체 역시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조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지역축제형 보훈행사로의 전환

- 야오지부의 떡메치기 행사는 지역 대표 축제로 발전함. 강화군 역시 보훈행사를 시민참여형 축제로 발전시켜 지역사회 공감대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자체 수익사업을 통한 재정기반 강화

- 야오지부는 광고 후원과 수익사업을 통해 운영재원을 확보하고 있음. 강화군도 기업 후원, 기념품 판매 등 다양한 재원 확보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차세대 육성사업 확대

- 야오지부는 어린이·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미래세대를 육성하고 있음. 강화군 역시 청소년 역사체험과 평화교육을 확대하여 보훈문화의 계승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통합사무국 중심의 운영체계 구축

- 고령화된 보훈단체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통합사무국을 설치하여 사업 기획, 행정지원, 홍보 및 재원 확보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음



[사진 4] 야오시 민단지부 간담회

2 사례조사

1. 아스텔플라자

■ 개요

- 히로시마 아스텔플라자는 히로시마시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복합 공공문화시설로 공연장, 다목적홀, 회의실, 연습실, 시민갤러리, 국제청소년회관 등을 갖추고 있음. 문화예술 활동과 시민 교류, 국제교류를 지원하는 거점시설로 조성되었으며, 시민과 공공기관, 문화예술단체 등이 예약을 통해 공동 이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 특정 단체가 상주하지 않는 개방형 운영체계를 채택하고 있으며, 시설의 공공성과 공간 활용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 특징

- 아스텔플라자는 공연장, 회의실, 연습실, 시민갤러리, 국제청소년회관 등이 결합된 복합 공공문화시설로 운영되고 있음
- 특정 단체가 상주하거나 전용으로 사용하는 구조가 아니라, 시민과 문화예술단체, 공공기관 등이 예약을 통해 공동 이용하는 개방형 운영체계를 채택하고 있음
- 회의실과 다목적 공간은 행사 규모와 목적에 따라 탄력적으로 활용되며, 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음
- 공간의 이용 대상을 특정 단체로 제한하지 않고 지역사회 전체에 개방함으로써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시민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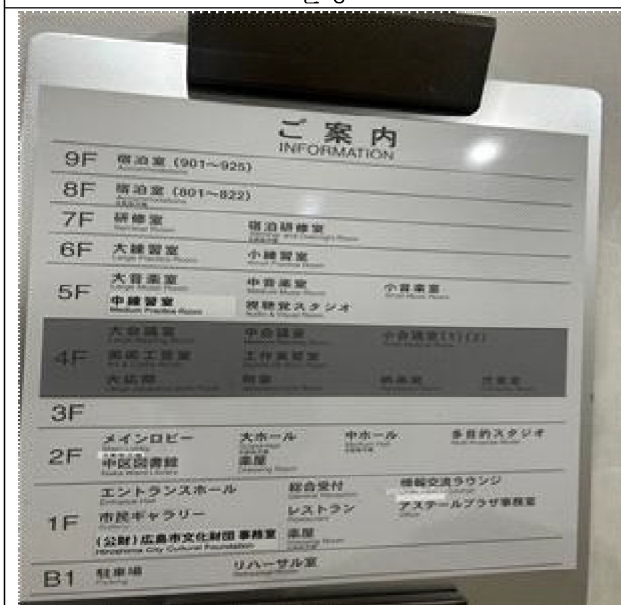
- 아스텔플라자 사례는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특정 단체의 상주공간보다 공유형 공간 운영체계가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줌. 강화군 보훈회관 3층 회의실도 보훈단체의 회의와 행사를 우선 보장하되, 유휴시간에는 지역 주민과 공공기관, 자원봉사단체, 평생교육 프로그램, 보훈·안보 교육 등 다양한 공익활동에 개방하는 운영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운영 방식은 시설 이용률을 높일 뿐 아니라, 보훈회관을 특정 단체 중심의 공간에서 지역사회와 함께 활용하는 복합 공공공간으로 전환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특히 회의실 예약제와 이용 기준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경우, 공간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보훈단체와 지역사회의 상생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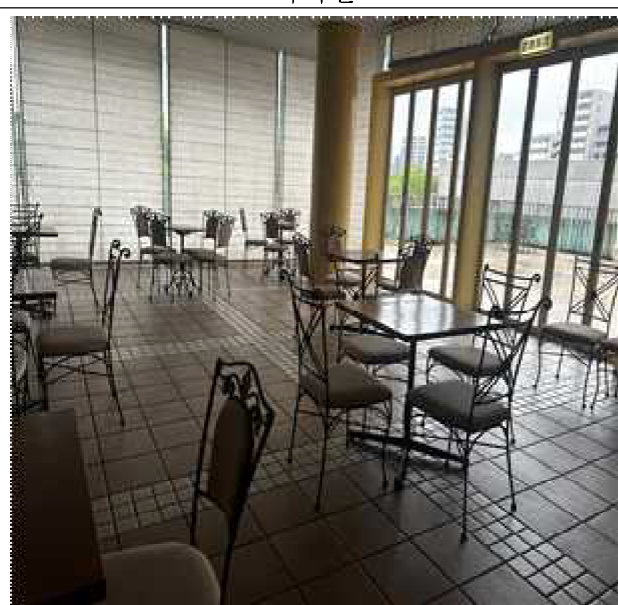
전경



회의실



시설 안내도



휴게실

[그림 1] 아스텔플라자

2. 오사카 민단본부

■ 개요

- 오사카 민단본부는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오사카부 지방본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재일동포 단체와 기관이 함께 입주한 복합 커뮤니티 시설임. 건물 내에는 민단 오사카본부를 비롯해 한국교육원, 한국상공회의소, 부인회, 청년회, 학생회, 체육회, 장학회, 한국인복지협회 등 다양한 단체가 입주해 있으며, 대강당과 다목적실, 회의공간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음.
- 각 단체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하나의 공간을 공유하는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시설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 특징

- 민단을 중심으로 교육, 복지, 경제, 청년, 여성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단체들이 한 건물에 입주하여 상호 협력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음
- 각 입주단체는 사업과 활동을 자율적으로 추진하면서도, 건물 관리와 행정지원, 행사 운영 및 대외 협력은 민단 오사카본부가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즉, 민단본부가 통합사무국(Control Tower)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입주단체는 고유사업에 집중하고, 공통업무는 공동으로 처리하는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대강당과 다목적실 등 공용공간을 공동으로 활용하여 공간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으며, 단체 간 협력과 공동행사 개최도 용이한 구조를 갖추고 있음
- 복도와 벽면 등 공용공간에는 이동식 전시패널을 설치하여 재일동포의 역사와 활동, 평화와 문화 등을 상시 전시하고 있으며, 이동통로를 기억과 교육의 공간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음

■ 시사점

- 오사카 민단본부는 '단체별 자율성'과 '운영의 통합성'을 조화시킨 대표적인 사례임. 입주단체는 고유사업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되, 행정과 시설관리, 공동행사 등은 민단본부가 통합 지원함으로써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있음
- 이는 여러 보훈단체가 입주한 강화군 보훈회관에도 적용 가능한 운영모델임. 각 보훈단체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유지하되, 시설관리와 회의실 예약, 공동행사 기획, 대외협력, 홍보 등 공통업무는 통합 운영조직이 담당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단체 간 중복업무를 줄이고 협력체계를 강화할 수 있음
- 또한 별도의 기념전시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강화군 보훈회관의 현실을 고려할 때, 오사카

민단본부처럼 복도와 계단, 로비 등 공용공간을 활용한 상설 기억공간 조성은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 이동식 전시패널과 벽면 전시를 활용하면 참전유공자의 구술기록과 사진, 보훈단체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전시할 수 있어 공간 활용도를 높이는 동시에 보훈회관의 교육·기억 기능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전경



시설 안내도



회의실



기억공간(이동식 전시패널)



기억 공간(벽면 전시패널)



상주 단체

[그림 2] 오사카 민단본부

